

요한이서 개관

1. 개요

요한이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서신(13 절)입니다. 사도 요한이 “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”에게 보낸 편지로, 진리 안에서의 사랑과 이단적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. 이 편지는 단순히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, 에베소 인근의 어느 교회(“부녀”)에게 보낸 것으로 보며, 요한의 사도적 돌봄과 영적 분별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.

2. 저작 연대

- AD 85~95 년경,
 - 요한일서와 거의 동일한 시기.
 - 에베소에 거주하던 요한이 거짓 교훈 확산에 대한 염려 가운데 기록.
-

3. 저자

- 사도 요한, 본문에서는 “장로”라고 소개되며(1 절), 이는 단순한 나이의 의미가 아니라, 영적 권위자이자 사도적 위치를 나타냅니다.
-

4. 기록 목적

- 교회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,
- 거짓 그리스도인들과의 접촉을 삼갈 것,
-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고수할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.

5. 단락 구분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-3절 | 인사 및 진리 안의 사랑 강조 |
| 4-6절 |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 |
| 7-11절 | 미혹하는 자들(적그리스도) 경계 |
| 12-13절 | 마무리 인사와 대면 소망 |

6. 중심 메시지

“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” (6 절)

“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...” (7 절)

이 서신의 중심은 진리와 사랑입니다. 그러나 이 사랑은 감정이나 포용주의적 개념이 아니라, 계명에 따른 순종의 사랑, 그리고 분별을 동반한 거룩한 사랑입니다.

7. 신학적 이슈

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왜곡

- 7 절은 “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”을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규정합니다. 이는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적 오류에 대한 대응입니다.

② 교제의 기준

- 10-11 절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를 “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”고 명시합니다. 이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, 영적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입니다.
-

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요한이서 해석

① 사랑과 진리의 균형

- 개혁주의는 진리에 기초한 사랑을 강조합니다. 요한이서는 이 균형을 견고히 세워줍니다.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,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사랑, 즉 하나님 중심적, 언약적 사랑을 요청합니다.

② 교리의 순수성과 교회 분별

- 교회의 영적 정체성은 복음 진리에 대한 바른 고백에 있습니다. 거짓 교훈에 대한 단호한 태도는 교회 규율과 분별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.

③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사 중심성

- 예수님의 성육신의 부정은 복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에, 개혁주의는 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, 사도 요한의 권면을 신학적 근본주의의 선례로 봅니다.